



남원시의회, 본회의 직후 청렴 캠페인

남원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차 본회의 직후 공청하고 부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태 의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부패와 비위 없는 깨끗한 의회 운영을 시민 앞에 약속,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의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환응의 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공직 수호행으로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의 사적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2026 청렴 선언! 다시 뛰는 남원시의회'라는 현수막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결연한 청렴 의지를 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해 자원봉사 실천 의지 다짐

익산시 자원봉사자 신년인사회

익산시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는 14일 송학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익산시 자원봉사자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새해 자원봉사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 주관으로 열렸으며,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익산시립풍물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월간베스트 자원봉사자 9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엄양섭 이사장의 신년사와 자원봉사단체 소개, 신년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자원봉사센터로 자리를 옮겨 떡국을 나누며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시는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서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실천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회 협의회로부터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도내 시·군의회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합동교육연수'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유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재선 의원인 유의식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대년간 쌓아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민의를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군 연초 방문 일정 등 민생 현장을 챙기기 위한 부득이한 일정으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별도로 상을 전달받으며 군민을 향한 변함없는 봉사 의지를 다졌다. /완주=염재복 기자



부안산림조합, 농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부안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지난 13일 부안군농업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부안산림조합의 누적 장학금 기탁액은 총 1억1,550만원에 이르며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부안산림조합은 산림경영 지도와 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장학금 기탁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무지개로타리, 효자1동 다자녀 가정에 비데 설치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온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무지개로타리 클럽(회장 장영자)이 새해를 맞아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무지개로타리 클럽은 지난 13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효자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다자녀 가정 27가구를 대상으로 비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자녀가 많아 가계 지출이 크고 주거 환경 개선에 선택 나서기 어려운 다자녀 가정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

비데를 지원받은 한 다자녀 가정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많이 화장실 위생 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큰 선물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무지개로타리 클럽 장영자 회장은 "로타리의 모토인 '초이의 봉사(Service Above Self)'를 실천하기 위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다자녀 가정의 어려운 일상을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효자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무지개로타리 클럽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주민센터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무지개로타리 클럽은 이번 비데 설치 지원 외에도 장학금 전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지난 1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진행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합동교육연수회에서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정협의회(회장 남관우)에서 수여하는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조민규 의장이 이번에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조민규 의장은 2024년 7월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간 총 13회기의 회기를 운영하며 고창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농생명 경제 도시 기반 마련 ▲호남권 5개 시군의회와 협력한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성명서' 발표,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등 군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 등이 꼽힌다. 또한 최근 고창군의회 신청사 개청을 통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의 광장'을 조성하며 의회를 문턱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조민규 의장은 "이 상은 5만 군민의 성원과 동료 의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늘을대고 착공과 서해안 철도 구축 등 고창의 대도약을 위해 일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35사단, 임실군에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수여

임실군, 2025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를 수호하고 있는 제35보병사단장(김광석 소장)이 14일 임실군수실을 방문해 2025년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임실군청과 임실군의회에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동원태세 확립 및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훈련장 환경개선 △전부담기 및 물자구매 △예산 및 행정지원 △지역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임실군과 임실군의회에 공로에 감사패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예비군 행정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예비군 전력 강화에 노력해 준 임실군청 장광민 주무관에게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광석 35사단장은 "임실군이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을 35사단 전 장병과 함께 축하한다"며 "군(軍)과 지자체가 지인과 협조를 통해 지역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모범적 사례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정과 함께 든든한 지역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2025년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은 임실군이 지역 안보를 군과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인식 아래,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꾸준히 힘써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준 예비군 관계자와 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임실=진홍영 기자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

의성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주석 병원장이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순창을 백산리 출신인 한주석 병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순창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보건소-부안치과의사회, 노인인지사업 '맞손'

부안군보건소는 14일 노인인지(틀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안군치과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아 상실로 인해 저작기능 저하와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와 치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인지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고 협약 치과의료기관은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인의 저작기능 회복과 구강건강 개선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보안면 최병하씨, 이웃돕기 성금 기탁

부안군 보안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찾아 보안면 출신인 최병하씨가 지난 13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성금은 최병하 씨의 뜻에 따라 관내 8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10만원씩 배분된다.

최씨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고 전후 복구, 경제발전에 헌신한 위대한 세대"라며 "우리 부모님같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기탁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철기 보안면장은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고향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산내면 지사협, 홀몸 어르신에 생신밥상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한웅 위명량공동위원장)는 지난 13일, 1월에 생신을 맞은 85세 이상 홀몸 어르신 3가정을 방문해 생신밥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내면은 올해 40가정의 생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축하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생신을 맞이한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생신 상차림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본사내방

▲우범기 전주사장